

[기획] >> 4면
우리학교 원격강의 시행

[기획] >> 5면
사이비종교

[사회문화] >> 8면
'n번방 사건'에 응답한 정부, 계속되는 논란

[인물] >> 12면
폴란드 문학 번역의 선두자, 최성은

개강후 원격수업 2주+2주 연장, 해결할 문제는?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우려로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개강을 연기하고 2주간 비대면 원격강의를 시행한다. 현재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온라인 강의 일정을 2주 더 연장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원격강의 체계 도입은 여러 문제를 초래했다. 원격강의가 일으킨 혼란과 이에 대한 대처를 자세히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우리학교 아랍어과, '아시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이번 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 '2020 아시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에서 △박석환(아시아·아랍어 13)△임동균(아시아·아랍어 12)△지상진(아시아·아랍어 15)△정도현(아시아·아랍어 17) 학생이 비아랍 대학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해당 대회는 △정치·경제·사회·환경·인권 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각 토론 주제는 시작 20분 전에 공개되며 각 팀은 토론장으로 이동하는 20분 안에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구성돼 △7분간 주장 발언△질문△반박△재박을 한다.

대회 주최인 '카타르 파운데이션' 산하의 카타르 토론 센터는 2년마다 카타르에서 국제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



▲우리학교 아랍어과 학생이 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모습

던 이전과 다르게 이번엔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단위 토론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한 32개 팀 중 20개 이상의 팀이 중동의 걸프 지역과 삼지역 국가였다. 사실상 아랍어가 제1외국어인 비아랍 대학이 많았던 것이다.

한편 이날 수상한 박석환 우리학교 재학생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움을 준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는 한 달간, 매일

모여 다양한 주제로 연습했는데 살라딘과 윤은경 교수가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임동균 씨는 "비아랍어권 토론 부문 수상이 아랍어인들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며 "향후 있을 아랍어 토론대회의 참가자에게 하나의 동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생명공학과 황윤정 박사과정생,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동계심포지움에서 최우수상 수상해

이번 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0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동계심포지움'에서 황윤정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박사과정생(이하 황 박사과정생)이 논문 'Engineered Bacteriophage T7 as a Potent Anticancer Agent In Vivo'으로 최우수 구두발표상을 수상했다. 해당 논문엔 기존의 독한 항암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제시됐다. 치료의 핵심요소인 박테리오페이지*는 DNA를 조작해 만든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특정 암세포만을 목표로 해 정상세포엔 붙지 않고 암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후 암세포 안에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과량으로 발현시켜 암세포 근처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집중시킨다. 즉 자연스럽게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항암치료보다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항암치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From Technology to Startup"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동계심포지움은 400여 명

이 참가했고 28명의 대학원생이 미생물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와 관련해 발표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응용미생물학과 산업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 실제로 SCI**급 논문 저널을 매해 발간해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황 박사과정생은 "아직도 배워야 할 점과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수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데엔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명희준 지도교수△실현실 선배△동료△가족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학업에 정진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테리오페이지(bacteriophage) : 세균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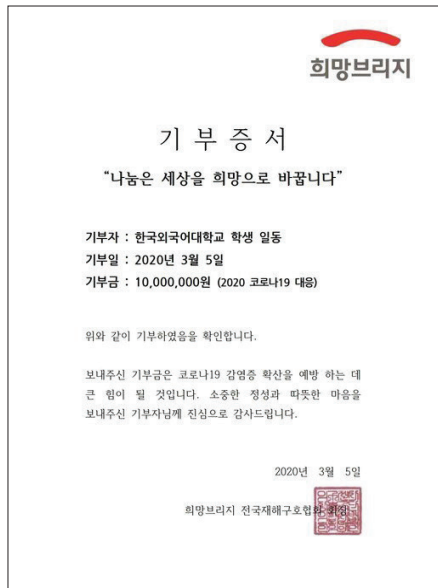
**SCI :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며 등록 여부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 평가 기준이 됨.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학생들, 코로나19 기부금 전달해

이번 달 4일부터 9일까지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와 'The 본'은 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야기됐다. 양 캠퍼스는 총 3차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의료진 및 봉사자를 위한 모금을 실시했다. 1차 모금을 시작한지 2시간 만에 목표액인 300만원에 도달하며 이어 2차 모금이 진행됐다. 2차 모금 역시 하루 만에 목표액인 700만원을 달성했다. 이에 5일,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기부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일동'으로 기부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 기부금이 입금되자 양 캠퍼스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3차 모금을 시작했다. 5일 동안 진행된 해당 모금에 약 45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지난 9일 총학생회는 또한번 기부금을 전달했다. 총 누적 기부금은 약 1,460만원으로 모금에 참여한 학생은 총 851명이다. 해당



▲희망브리지 기부증서

기부금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 이는 △재난 위기가정에 개인위생용품 제공△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및 식료품 제공△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게 건강보조식품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가 연합해 진행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부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캠퍼스에서선 일부 과 학생회장이 기부 모금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 대표자 일동으로 기부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일반 학생의 참여 의사도 드러났다. 이후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의 합동 기부에 대한 제의가 들어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함께 기부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김나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서양어·프랑스어 15)은 “우리학교 학생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추가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국가 재난 사태나 학생들이 원하는 기부사업이 있다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자연·화학 17) 역시 “1차 모금을 진행하며 2시간 만에 1차 모금 목표액이 채워져 벅찼다”며 “우리학교 학생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학교 교직원들은 학생의 자발적인 기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기부에 참여한 재학생 역시 뿌듯함을 드러냈다. 조성태(통번역·마인어 19)씨는 “큰 액수를 기부한 건 아니지만 고생하시는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제8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 수여식 열려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제8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이하 씨앗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씨앗 장학금은 2015년부터 우리학교 교직원 120명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꾸준한 모금을 통해 재학생이 교내에서 자신의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기금으로 성장했다. 매 학기 서울캠퍼스 2명, 글로벌캠퍼스 2명을 선발해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주최 측은 장학생을 여러 기준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학기 평점 및 전체 평점 3.5이상이어야 하며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학생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한 학생△공모전·경시대회 등에서 수상한 학생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학생지원팀 김범석 과장이하 김 과장은 “선발기준에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로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재학생에게 우리학교 교직원을 위한 많은 격려와 응원을



▲씨앗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

부탁했다. 이어 “우리학교 직원이 십시일반 모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씨앗 장학금을 통해 진로나 꿈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에 뿌듯하다”고 전했다. 장학금을 받은 이택규(사회과학·정치외교 17)씨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다. 이에 학기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씨앗 장학금에 지원했다. 그는 “소중히 모아주신 씨앗 장학금을 받게 돼 학교와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직 씨앗장학금에 대해 모르는 학생도 많다. 정송희(통번역·스페인어 19)씨는 “씨앗 장학금과 같은 장학금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명확한 선발 계획과 기준은 알지 못했다”며 “교직원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해 재학생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한 점에서 뜻깊은 장학금이다”고 전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우리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생들 시집 출간해



◀시집 '다니자'

우리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소속 학회 다니자 학회원들이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이하 세크어)를 한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집 '다니자'를 출간했다. 시집에는 학회원들이 세크어로 쓴 시와 한국어 번역본이 실렸다. 주제는 △시작△사랑△행복△성공△삶 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지역이 있는 발칸반도는 지리·역사적으로 닮은 부분이 많다. 박경민 학회장(동유럽·세크어 15)(이하 박 회장은) “이러한 특징이 감성적인 시에서도 드러날 것이란 실험적인 생각에 시집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시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

크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집 제목이자 학회 명칭인 다니자는 세르비아어로 금성을 뜻한다. 2개의 분과로 구성된 다니자 학회는 부크바르와 유튜베르로 나뉜다. 언어 및 문화 공부기 이뤄지는 부크바르 분과에선 △전공어문학△옛 유고슬라비아 지역 문화△역사 등을 학습한다. 반면 영상 편집 및 제작이 이뤄지는 유튜베르 분과에선 △시집 발간△영상제작△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다니자의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실현하고 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송재목 우리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한글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해



◀송재목 우리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지난달 18일, 송재목 우리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이하 송 교수)가 '한글학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글학회는 한국어학 전문 학술지 '한글'에 실린 논문 중 매해 두 편을 선정해 우수 논문상을 시상한다. 이는 심사위원회 평가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다. 이번 해엔 송 교수의 논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논문의 제목은 '일동장유가의 인용문'이다. 논문은 영조 39년에 김인겸이 일본을 다녀와 한글로 쓴 기행 기사인 일동장유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동장유가는 당시 일본 사회 모습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으로 연구 가치가 높다. 논문에선 일동장유가에서 인용된 모든 구문을 분석해 그 특징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15·16세기와 근현대의 한국어 인용구문을

비교해 한국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던 학문적 가치를 가진다.

송 교수는 수상에 대해 “△교육△연구△논문은 교수의 기본적인 업무요소다”며 “연구방법과 논문을 쓰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글학회는 1908년 주시경, 김점진 등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술단체다. 이 학회는 1927년 동인지*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1932년부터 학술지인 한글을 발간했다. 이는 현재까지 일 년에 4번씩 간행되고 지난해엔 총 37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동인지: △사상△취미△경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발행하는 잡지.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새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할 것인가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는 입학을 앞둔 신입생이 학교생활 전반을 익히고 재학생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2박 3일간의 행사다. 우리학교는 매해 2월 중순 캠퍼스 단위로 새터를 진행한다. 현재 새터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은 오랜 시간동안 변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해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터가 취소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새터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새터의 정의와 역할

새터는 2박 3일간 신입생과 재학생이 합숙하며 학교생활에 대해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행사다. 매해 2월 중순 입학의 목전에 둔 신입생들이 글로벌캠퍼스와 서울캠퍼스로 나뉘어 새터에 참여한다. 새터는 크게 △중앙판·중앙공연(이하 중앙판)△단대판·단대 세미나(이하 단대판)△과판·과 세미나(이하 과판)△학과별 친목활동으로 구성된다. 중앙판은 캠퍼스 학생이 모두 모여 △단대 및 과별 응원가 제창△동아리 공연 관람△연예인 공연 관람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판은 보통 새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최대인원이 참여한다. 한편 단대판 및 과판에선 단과대 혹은 학과별로 모여 각 단위 학생회가 준비한 활동을 진행한다. 해당 활동은 단과대 혹은 학과별로 다르며 △토크쇼△보드게임△OX퀴즈 등과 같은 게임으로 구성된다. 오후 8시 이후에 이뤄지는 학과별 친목 활동에선 각 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적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의 모습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우리학교 새터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새터는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신입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은 “우리학교가 신입생에게 성인으로서는 처음 마주하는 사회일 수 있다”며 “그만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새터가 학교 화치에 명시된 행사는 아니다. 화치엔 새터의 예산 집행 방식만이 수록돼있다. 이에 새터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정의는 총학생회에 따라 유동적이다. 또한 최근 학교홈페이지 등에서 ‘새내기새로배움터’란 명칭이 ‘신입생 OI’ 등과 혼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학교 출신의 교직원이 현재 바뀐 명칭과 과거 명칭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새내기새로배움터’가 맞다”고 정정했다.

◆ 새터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

외대학보는 이번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우리학교 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현재 새터 체제의 장단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9.8%인 154명이 학과별 친목 활동을 새터의 취지에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던 것이 그 이유다.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두 번의 새터를 경험한 홍유진(사회·미디어 18) 씨는 “학과별 친목 활동을 통해 친해진 선배와의 관계는 학교생활로도 이어져 이후에 도움을 청하기가 수월했다”고 얘기했다.

◆ 새터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

반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학교 새터의 문제점은 △중앙판 연예인 공연의 부적절성△비싼 새터 비용△과도한 대기시간이다. 중앙판에서의 연예인 공연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엔 △‘동의한다’ 74.1%△‘반대한다’ 21.4%△기타(상관없다 등) 4%의 답변이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학교 새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선 연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 붙은 신입생 환영 플랑의 모습

예인 공연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크게 ‘새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와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든다’로 나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연예인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새터 회비가 비싸서 가기 꺼려하는 사람을 여럿 봤다”며 “연예인 공연을 포함한 새터 전체의 규모 축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분위기를 풀어주고 중앙판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연예인 공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연예인 공연은 장소에 접하기 힘든 문화 활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새터 규모를 축소하란 건의에 대해선 단순히 규모 문제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혁신을 통해 학생들과 의견 조율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새터의 연예인 공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업체와 협상한다. 총학생회 측은 2017년의 사례와 같이 정기총회를 통한 예산 사용 내역의 공개가 업체와의 법정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실 방문을 통한 개인적인 조화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새터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박장원(자연·화학 17)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은 “캠퍼스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안전교육, 수강신청에 대한 설명 등은 캠퍼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각 단위별로 신입생의 수가 상이하단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터 프로그램 전반의 대기시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나 식사시간에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단 것이 그 요인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협소한 공간이나 맨바닥에 앉아 오랜시간 대기하면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전경

술자리에서 식기가 부족했던 점과 수면을 취할 공간이 지나치게 좁단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 우리학교 새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새내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새터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새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학생은 “간부 소개 등의 허례허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음주 문화가 지속적으로 점점돼야 한단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론 과도한 음주를 막을 수 없다”며 “올바른 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손목에 차고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겠단 의미의 ‘드링크 프리 팔찌’를 제작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역시 명찰에 부착해 음주 자기 결정권을 표현할 수 있는 ‘음주 스티커’를 고안한 바 있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안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실제로 새터 기획사 선정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줄 수 있는 업체가 우선시됐다. 김 회장은 “숙소의 경우 베란다 안전장치까지 일일이 확인한 후 선정했다”며 “이번 해 새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 위원 인권안전주제를 선발했으며 새맛이 포럼을 통해 인권 내규와 대처 매뉴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새터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확대간부수련회에서 배부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안전 매뉴얼엔 △비상연락망△보고 체계△상황별 대응 매뉴얼△구급상 사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박 회장은 “자신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상황을 방관하지 않는 새터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해 새터의 불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학생은 “새내기로서 새터를 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캠퍼스 정상화 이후 대체 행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도 인권 교육이나 선·후배·동기간에 유대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 존재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새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새터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도 많이 변화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이제는 큰 틀에서의 혁신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새터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총학생회로서 새터와 관련된 문제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점을 점차바로 잡아 아무 우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원격강의 시행, 혼란 속 해결책을 찾아 나선 우리학교

지난달 5일, 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각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고 개강 후엔 일정 기간 동안 원격강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학교 또한 개강일자를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연기하고 2주간 비대면 강의 진행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온라인 강의를 2주 더 연장한 상태다. 현재 우리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은 전례 없는 비대면 원격강의 시스템을 도입하며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강의 시스템△원격강의의 문제점△학생 의견△총학과 학교의 대처 등을 살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원격강의 시스템

우리학교의 모든 원격강의는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며 매 수업 출석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강의의 출석은 본래 수업 시수 1시간당 25분 이상 재생되어야 인정된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홈페이지에 전자출결 방식 메뉴얼을 비롯한 원격강의 지침을 게시했다. 원격강의 출결 관리는 △e-Class 출석 메뉴 활용△e-Class 강의 자료실 다운로드 여부 확인△e-Class 온라인강의실 학습 이력 확인△Webex 실시간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QR 코드 인식을 통해 이뤄진다. 모바일로 Webex 수강시엔 QR 코드를 사용한 전자출결이 불가하다. 해당 과목 교수의 선택에 따라 출결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업마다 개별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원격강의는 e-Class와 실시간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e-Class는 음성강의 및 강의 자료를 올리거나 유튜브에 게재된 강의 동영상 링크를 e-Class 온라인강의란에 연결해 놓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실시간 원격강의는 Webex 등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통일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이 역시 해당 과목 교수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Webex 이외에 △Zoom △K-MOOC△Google-Classroom 등을 통해서도 수업이 가능하다.

◆원격강의가 초래한 문제점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주간 비대면으로 원격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시스템 활용에 대한 혼란이 빚어졌고 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 원격강의 시스템에 대해 안지현(상경·국통 19) 씨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원격강의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마다 진행방식이 달라 번거롭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되지 않은 수업방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면 수업과는 다른 출결 방식 또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보미(상경·국통 19) 씨는 “실시간 원격강의 경우 전자출결이 활용되는데 출결 확인이 제대로 되지 불안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갑작스런 원격강의 체제 도입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도 불편을 겪게 했다. 이상해(미네르바 교양 대학 교수)는 “조금이라도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강의를 택해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차선책일 뿐 강의는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소통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정영권 세계문화예술경영 전공 교수는 “강의 동영상과 자료가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만큼 불법 유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달 16일, 원격강의 체제로 인한 우려 중 일부는 현실로 다가왔다. 실시간 원격강의 수강과 과제 확인을 위해 한 번에 많은 학생이 몰리면서 우리학교 e-Class 서버가 마비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서버 자체에 접근이 불가하거나 접속이 지연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출결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Class에 접속되더라도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강 도중 연결이 끊기는 등 서버가 매끄럽게 작동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강의의 음질과 같은 기술적 문제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처럼 원격강의 기기에 대한 문제와 비대면 원격강의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접속 장애가 동일하게 발생했다.

온라인 원격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단 점에서 실습과 실험수업이 필요한 학생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학교의 경우 실험을 필요로 하는 이공계열 단과대와 실습을 해야 하는 어문학과 및 통번역대학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 정규연(아시아·몽골어 19) 씨는 “발음 교정을 비롯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전공어 실습과 회화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교수님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른 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화여자대학교 엘텍공학대학 식품공학과에 재학 중인 J 씨는 “이론만 배우는 것과 실험에 적용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어 실험과 실습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단 것은 큰 손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향후 대면 수업 진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실험에 쓰이는 △기구△시료△실험실 운영비 등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도입된 원격강의 체제는 △각 대학 본부△교수△학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각 대학 본부는 사태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교수는 원활하지 못한 수업으로 강의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학생은 △통일되지 않은 원격강의 방식△기술적 결함△실습 실습 대체 불가△일부 수업의 부실한 강의계획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제에 대한 학생 의견

원격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번 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원격강의 실시 이후 텅 빈 캠퍼스

‘원격강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96.1%에 달했다. 이어 원격강의로 인한 피해 해결책 중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엔 ‘등록금 일부 반환’이 91.5%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방학 중 실질 학기 운영△원격강의 방식 통일△절대평가 도입△교수들에게 원격강의 장비 제공△학교의 빠른 행정처리 등의 요구가 나왔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실험·실습 수업의 한계△학교 시설 이용 불가△수업 일수 단축 등이 그 이유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참여 인원은 19일 기준 9만 명을 돌파했다.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해 현재 우리학교를 포함한 각 대학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청원진행중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02.29)

참여인원 : [90,663명]

카테고리

영양

청원시작

2020-03-02

청원마감

2020-04-01

청원인

naver***

▲등록금 인하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않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일괄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며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대학 등록금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더불어 제6조 4항에 의거하면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개강 연기 기간은 2주에 그쳤고 이후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수업 일수 단축으로 인한 등록금 인하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과 학교의 대처

이번 달 1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대학가 대책 마련 촉구 전대넷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대학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이날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또한 참여했다. 기자회견 이후엔 이혜지 전대넷 공동 의장 및 집행위원장이 △등록금 반환조치△수업의 질△학생 소통보장의 내용을 담은 학생 요구안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로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The 본(이하 글캠 총학)’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9일까지 총 6일간 ‘대학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는 원격강의 피해사례 조사를 시행 중이다.

양 캠퍼스 총학은 이번 달 16일에 발생했던 e-Class 접속 장애에 대해 관련 부처의 조속한 문제해결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학교 정보지원처는 e-Class 서버를 통한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음성강의 및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공지했다. 교무처에선 교수에게 1주차 수업에 한해 △퀴즈 △질의응답△과제물 등으로 학습 이력을 체크하되 출석을 성적에 반영하진 않도록 요청했음을 알렸다. 이번 달 9일, 학종지는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수업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설캠 총학은 “현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수업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양 캠퍼스 학생대표를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달 17일, 교육부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이번 달 23일에서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이후 이번 달 20일, 우리학교 또한 기존 3월 27일까지였던 원격강의를 4월 10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달됐다. 동시에 재학생에게 발송된 공지 메일에선 원활한 원격강의 진행을 위해 시스템 보완 및 교수학습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변동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원격수업 기간은 총 4주가 됐다.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서경대학교△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중앙대학교 등은 온라인 강의를 2주 더 연장했다. 지난 13일, 카이스트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유니스트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다. 이 외에 △광운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세종대학교△성균관대학교 또한 온라인 강의 한 학기 전면 실시를 검토 중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종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향후 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비 종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최근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사이비 종교 중 하나인 신천지의 예배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단 감염 경위를 파악하고자 신천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공개된 신천지 내부는 규모와 인원이 거대했다. 특히 24만 명

에 이르는 신천지 전체 신자 중 40%가 20대였다.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20대 신자를 현혹할 수 있었을까? 사이비 종교와 우리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비 종교란 무엇인가?

사이비 종교는 기존 종교의 본질인 △깨달음△구원△도 등을 표방하긴 하나 실제로 추구하지 않는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신자에게 교리를 주입한다. 해당 교리가 논란이 된 이유는 △사회적 혼란 및 범죄 야기 △부도덕한 행위 정당화△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조장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와 197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쓴 인민사원 등이 있다. 흔히들 사이비와 이단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두 집단의 개념은 다르다. 이단의 사전적 의미는 가톨릭과 같은 기성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을 주장하는 종교다. 한 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여기엔 △모르몬교△여호와의 증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DA) 등이 속한다. 즉 이단은 종교적 관점에서 기성 종교와 교리상의 차이가 커 양립하기 힘든 종교를 의미하고 사이비 종교는 사회적 관점에서 법이나 도덕을 어겨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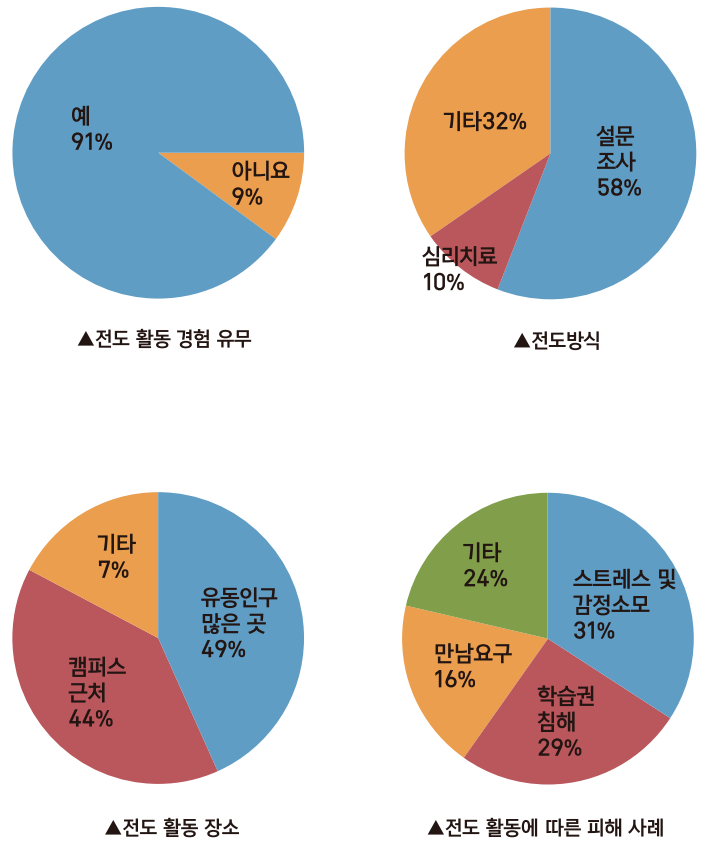
◆우리학교는 사이비 종교 전도로부터 안전할까?

외대학보는 이번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우리학교 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사이비 종교 전도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에 이르는 170명이 ‘사이비 종교의 전도 활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의 접촉 방법은 응답자 전원이 대면 접촉이라고 대답했다. 전도 방식으로 ‘설문조사 요구’가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심리치료를 빙자한 만남 요구’가 10%였다. 이는 흔히 ‘감성 전도’, ‘맞춤 전도’로 알려진 대표적 사이비 종교의 전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무료로 영어를 알려준다며 접근△길을 알려달라고 부탁△대학원생을 사칭하여 동문회 참석 유도 등 다양한 전도 방식이 있었다.

전도 활동 장소에 대한 답변으로 20대가 많은 △‘지하철역과 같은 유동 인구 많은 곳’ △‘캠퍼스 근처’가 각각 49%, 4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사이비 교인은 주요 전도 장소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개방된 공간을 선정한다. 유동 인구 무리에 섞여 개인에게 접근해 전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가 만남을 요구할 땐 주로 전화나 문자 등 핸드폰을 활용해 응답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런 전도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엔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 31% △‘시간 낭비 및 학습권 침해’ 30%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요구’ 16% 순으로 응답했다. 조혜원(아시아 · 태국어 16) 씨는 “강의 시간이 압박해 강의실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학내 포교활동 (사진출처: 노컷뉴스)



급하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심리 테스트를 권하며 말을 걸었다”며 “시간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붙잡아 얘기하려 해서 난감했다”고 상황을 회상했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12%가 피해사례로 ‘전도 활동으로 인한 교내 미풍양속 훼손’을 꼽았다. 이는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교내 전도로 인해 대학의 평판과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민(경영 · 경영 16) 씨는 “3년 전에 캠퍼스 내에서 전도 활동을 당했다”며 “출판하려는 책의 자료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엔 특정 종교의 믿음을 권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학교 역시 사이비 종교의 전도 활동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학교는 현재 서울캠퍼스내 ‘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폴리스 제도는 3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근무하며 학교를 24시간 관리, 순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관은 교내에서 허가 없이 전도 활동을 하는 외부인을 적발한 즉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캠퍼스 밖으로 쫓아낸다. 이 밖에도 학교내 관리인이나 경비인도 순찰 중 전도 활동을 적발하면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석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괄지원팀 과장(이하 강 과장)은 “실제로 교내 순찰 일지를 보면 △반려동물 출입△사이비 종교 전도△음주△흡연 활동이 가장 많다”며 “경찰관과 교내 관리인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정적인 근무자의 수와 물리적 한계로 사이비 종교 전도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강 과장은 “내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법적 강제권이 없어 현실적으로 캠퍼스 주위 사이비 종교의 완전한 차단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동문인 장운철 목사(이하 장 목사)는 ‘교회와 신앙’ 매체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전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다. 장 목사는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 특정인을 신처럼 취급한단 점이다”며 “평소 기존 성경에 대한 기초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교묘해지는 전도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대응 방안 강구를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4. 1(수) ~ 4. 7(화)	4.25(토) 10:00	5. 7(목) 14:00	5.11(월)~ 5.15(금)
일반전형	2020. 5. 7(목) ~ 5. 13(수)	6. 6(토) 10:00	6. 18(목) 14:00	6.22(월)~ 6.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기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분과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교내 쓰레기 처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이슈가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학교엔 교내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안내도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다. 이에 재학생은 쓰레기 처리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내에선 다양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해 입학한 신입생과 기존의 재학생 모두 교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교내 쓰레기 처리방식 실태와 올바른 쓰레기 처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의 쓰레기 처리 방법

우리학교 서울캠퍼스는 공간의 제약과 관리의 어려움 문제로 각각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두 종류의 쓰레기통만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 버려진 폐기물은 일차적으로 각 건물 안내실에서 점검 후 재분류된 뒤 본관 건물 뒤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된다. 이후 폐기물처리장에서 다시 △일반 쓰레기△재활용 쓰레기△기타 쓰레기로 나뉘 뒤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계약업체에서 수거해간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건물마다 서너 명의 미화원이 상주하며 하루에 평균 서너 번 정도 쓰레기통을 비운다. 그러나 다른 건물보다 비교적 큰 백년관은 예외적으로 총 7명의 미화원이 상주해 건물을 관리한다. 글로벌캠퍼스는 전체 면적이 또한 넓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이용해 기숙사 옆에 있는 처리장으로 옮긴다. 이는 이삼일에 한 번씩 용인시청 환경과에서 수거해간다.

◆교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

외대학보는 이번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교내 쓰레기 처리에 관한 우리학교 학생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4%가 ‘우리학교 쓰레기 처리에 문제 의식을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심각한 처리문제를 가진 쓰레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39.6%△음식물 쓰레기 32.1%△담배꽂초 20.8%라고 답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시기는 언제인가’란 질문에 대해선 △시험 기간 35.8%△축제 기간 28.3%△학기 중 28.3%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일회용 컵 처리에 대해 김철순 글로벌캠퍼스 미화원은 “음료가 남아있는 일회용 컵이나 캔 등을 그대로 버리는 학생이 많아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시험 기간’엔 일회용 컵으로 쓰레기통 주변이 엉망이다. 남은 음료와 얼음을 비우지 않고 버려 액체가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또한 많은 학생이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58.5%의 학생은 교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학교는 남은 음식물을 번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밀봉해 일반 쓰레기로 버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45.3%의 학생이 화장실 번기에 남은 음식물을 버린 후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학교 학생의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 학생은 “학교 차원의 안내나 교육이 부족하다”며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배꽂초 처리는 흡연구역이 설치될 때부터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물론 흡연구역 안에도 담배꽂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다. 하지만 그 주위로 담뱃꽂초와 담뱃재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건희(사회·미디어 18) 씨는 “정해진 자리에 담배꽂초를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담뱃불을 확실히 끄고 쓰레기통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내 쓰레기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으로 ‘음료 퇴수 쓰레기통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시설관리팀(이하 설캠 시설관리팀)에선 음료 퇴수 쓰레기통 설치 요청이 늘어날 시 용역업체와 협의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현재도 각 건물 안내실에서 자체적으로 음료 퇴수 쓰레기통을 배치한 건물이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시험 기간에 늘어나는 학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자주 쓰레기통을 비우는 조치를 취한다. 글로벌캠퍼스는 △음료수 병△음료수 캔△일회용 컵 등의 배출량이 많은 시험 기간에 한해 음료 퇴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팀(이하 글캠 시설관리팀)은 “시험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엔 화장실에 남은 음료를 버리고 용기는 분리수거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험 기간엔 도서관 열람실과 백년관 열람실 옆에 임시로 서너 개의 스



▲우리학교에 비치된 쓰레기통



▲쓰레기 없는 교내 모습

레기통을 더 비치하는데 이마저도 넘칠 때가 많다”며 “필요시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양 캠퍼스 시설관리팀은 “교내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생긴다면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으나 현실적으로 악취 등의 문제로 건물마다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흡연구역에서의 담배꽂초 처리에 대해선 글캠 시설관리팀은 “담배꽂초로 인한 쓰레기 처리도 어렵지만 무심코 떨어진 가래침을 처리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학생들이 흡연구역을 깨끗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리학교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쓰레기통을 종류별로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제한된 공간 문제로 재활용 쓰레기통의 종류별 설치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부피가 큰 종이류나 병만 분리수거하고 있다.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종류별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요구에 대해 “미화원이 쓰레기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봤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과 개인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앞으로 학교 환경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고 노력하는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쓰레기통 추가 설치 의견에 대해 “쓰레기통 추가 배치는 학교 측에 건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교내 위생과 미화에 관심을 두고 건의가 생긴다면 귀 기울여 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경우 학교 면적이 넓어 한 부서가 학교 전체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단과 별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뒤 관리하고 있다. 미화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지정된 집하장에 모아둔다. 또한 생협에서 텀블러 사용 시 음료 가격을 100원 할인해줘 학내 일회용품 과다사용을 줄이고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에선 간단한 기술을 통해 분리배출을 활성화한 취지로 직접 제작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우리학교 역시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세분화된 방식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려대학교에선 배출된 쓰레기를 선별 및 분류작업을 거쳐 재활용되거나 재생 연료로 쓰인다.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재생 고체형 연료’로 가공해 △제지회사△시멘트회사△발전소 등에 납품한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타 학교 사례를 참고해 우리학교 쓰레기 처리방식도 다채로워지길 기대한다.



▲쓰레기 없는 교내 모습

‘n번방 사건’에 응답한 정부, 계속되는 논란과 사회의 변화

매해 3월 8일은 국제연합(UN)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지정했을 때의 바람처럼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공유한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n번방 사건 처벌 촉구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n번방 사건이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11월에 알려지기 시작한 n번방 사건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몇 개의 채팅방이 존재하지 않 수 없어 n번방 사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n번방 사건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총 8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다. 이후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비슷한 형태의 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노출 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는 미성년 여성에게 경찰인 척하며 접근했다. 그 뒤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한 후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다. 성착취는 온라인에서만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간을 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착취 외에도 동의 없이 대상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s)* 범죄도 발생했다.

n번방 사건은 수많은 2차 가해자가 있던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 다르다. n번방 사건의 2차 가해자는 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해 아동 성폭행 불법 촬영물과 같은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 한다. 이런 인증 절차를 거쳐 채팅에 참여한 2차 가해자는 각 채팅방 당 평균 수천 명이며, 최대 접속 인원은 2만 5천여 명이었다. 기존에도 불법촬영,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존재했다. 하지만 수천 명이 이를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고 돈을 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신체 훼손과 강간 등 범죄의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역시 이 사건의 특징이다.

◆처벌을 촉구하는 대중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번 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요청 청원이 등록됐고 이는 한 달 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같은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하 국회 청원)에도 n번방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두 청원 모두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텔레그램 서버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청원에선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법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4월 11일,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시위 운영진은 “범죄자가 대가를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2018년, 혜화역 인근에서 불법촬영 성 판파 수사 규탄 시위가 열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대중의 요구에 응답한 정부

이번 달 2일, 민갑룡 경찰청장(이하 민 경찰청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민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텔레그램 추적 수사 지원 TF 설치△다방면의 국제공조 추진△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다짐했다. 청원에서 언급한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해선 △2016년 네덜란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서버 폐쇄△2017년 미국과 영국 등 38개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한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웹캠투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채팅방 운영자와 공범 등 67명 검거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



▲이번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속했다. 이어 민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7일, 서울경찰청은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추정되는 20대 중반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핵심 용의자를 포함해 나머지 용의자 4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는 개제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국회 청원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선 n번방 사건 청원에 관한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사위가 기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은 대상의 얼굴 등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는 청원에서 요구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사 정비 등을 개정안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기존의 개정안에 청원의 취지가 반영돼있기 때

문”이라 답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3개월 후인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계속되는 논란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달 3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이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내용을 속지하지 않고 논의했던 의혹이 제기됐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라며 청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는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사 정비 등의 청원 내용은 제외한 채 딥페이크 처벌만을 추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개정안이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달 11일, 여성연합은 개정안을 향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요구한 △디지털 성범죄의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불법 촬영물 소지 및 공유△그루밍 성폭력*** 처벌이 개정안에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여성연합은 △성적 촬영물 유포를 범죄로 합법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법상 처벌법 도입 등 총 7개의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여성연합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며 실망감 또한 표했다.

국내 여성단체는 계속해 성범죄의 엄격한 처벌 기준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처벌”이라며 “범죄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된다면 결국 가해자가 아는 순간 성범죄 발생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폴란드에선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자 성범죄 재발률이 30%대에서 5% 대로 감소했다.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고안해 볼 때다.

*딥페이크(Deepfakes):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함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2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일)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 현 상황(코로나19)관련 선발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을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의 : 02-2173-2595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 흔들려

이번 달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증권 시세(이하 증시)가 폭락했고 이런 상황은 아시아로 확대되며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주요국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마련하며 사태를 수

습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측되며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요동치는 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

Q1.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이번 해 1·2월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 지표가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2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생산력의 지표인 산업생산 증가율이 -13.5%를 기록하며 1976년 이후 첫 마이너스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산업생산 증가율 전망치 평균인 -3%를 넘어선 것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3월 이후 실물 경기의 반등 강도와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란 점에서 수출·내수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 또한 감염자 수가 크게 늘기 시작해 금융 및 실물 경기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실물 경기의 부정적 예측과 시장의 공포 심리가 반영되며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입니다.

Q1-1.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증시 폭락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팬데믹 선언 이후부터 19일까지 주요국의 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약 20%, 미국과 유럽은 약 30%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가 비교적 작은 하락 폭을 보인 것은 다만, 홍콩에서의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많지 않고 중국의 신규 감염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큼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가지수가 30%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까지 겹치며 소비와 투자 행위 자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융 및 산업시장에서 △아시아△미국△유럽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지속됐던 만큼 팬데믹 선언과 대서양 전면봉쇄가 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Q2.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다른 감염병 사태 때보다 크고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감염병으로 경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악영향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 사례론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가 있습니다. 다만 메르스는 높은 치사율에 비해 전파력이 낮아 종합병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만 전염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동의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해 코로나19처럼 세계적 대유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 역시 코로나19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

계로 빠르게 퍼졌고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실물 경기 및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도 이전의 감염병 때보다 더딜 것입니다. 백신 개발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소요가 예상되며 유효한 치료 물질 발견 및 치료제 개발도 몇 달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감염자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아시아의 △가치사슬**△물류 흐름△산업 공급체계를 조속히 복구한다면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출처: 노컷뉴스)

Q2-1. 감염병의 유행이 필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며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국가를 거치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본사는 체계 기획 및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소재 부품과 반도체를 가져와 베트남, 중국에서 조립해 아이폰을 완성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감염병 확산으로 생산이 멈춘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공정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Q3. 이번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하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기관 부실화로 기업이 자금부족을 겪으며 경기가 침체된 사건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 부담이 적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중단되면서 이에 투자했던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미국발 금융위기는 곧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돼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0%로 낮추고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시장의 추가 붕괴를 막았습니다. 또한 실업률 증가와 같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해선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세계대불황(Great Recession)은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Great Depression) 정도의 침체로까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관광업△영세 자영업△항공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불황에서 제조업 및 전체적인 서비스업 위축으로 전이됐습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진행 순서와는 반대로 △소비 및 투자 정지△실물경제 위축△신용경색****△금융 시스템 붕괴 순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당시 효과가 컸던 통화정책이 코로나19 사태에선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책금리를 크게 내렸음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가지수가 그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 및 외환시장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실물 경기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 치료제 개발 전까지 이런 정책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총수요가 급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4. 국회에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경정(이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이 무엇인지, 이외 다른 재정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의미합니다. 대구 및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그에 걸맞은 추가적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19일,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자금 및 추가 구제자금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응용개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전염병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창출과도 연결돼있기 때문입니다.

Q5. 우리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이해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특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왔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달러 등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용 외화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스위스△캐나다△호주는 통화(通貨)스와프가 체결돼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교환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통화는 미국 통화와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추가적인 미국 달러 공급 채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대체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입니다. 재정건전성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로 우리나라는 약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0~90%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건전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보다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초유의 사태라 조심스럽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거시적인 시장 안정성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실물 경기 측면에선 코로나19 통제 정도와 아시아의 산업 생태계 복구 속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외환시장△주식△채권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 달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과정이 어떻게 평가받는 지 주목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시아△미국△유럽에서 주력하고 있는 유효한 치료 물질 발견 및 치료제 개발이 금융시장에 큰 변동을 줄 요소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가치사슬: 기업 활동에서 부가 가치 창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의 연계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화폐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신용경색: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



본의 아니게 시작한 일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국어 공부 시작된다. 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필자는 외국에서 생활했다. 우리나라로 귀국한 후 국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또래와 벌어진 국어 실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글쓰기다. 국어를 배우고자 다닌 독서논술학원에서 많은 글을 썼다. 다양한 책을 읽은 후 글을 작성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동시에 내 생각을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중학교에 입학 후, 스펙을 쌓기 위해 교내 영자신문부에 가입했다. 한 달에 두 번만 활동했지만 많은 기사를 썼다. 이후 중학교 3학년 때 편집장 자리를 두고 가위바위보에 져 본의 아니게 편집장을 맡았다. 당시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prayforNepal' 캠페인이 열렸다.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교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을 쓴 것이다. 기사를 쓰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또한 내가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쓴 글도 읽으며 점차 한층 더 성숙한 글을 작성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엔 대학교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가 용이한 편집부에 들어갔다. 당시 편집부장 선배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편집부장을 떠안게 됐다. 교내 교지 및 학보를 총괄하는 선생님께서 임신을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학보△교지△특별호의 대부분 기사를 내가 편집하게 됐다.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글을 읽고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교지 및 학보라는 작은 신문을 만들며 처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우연히 겪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나에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자연스레 '기자'를 희망하게 됐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꿈에 대해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단순히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낀단 이유로 기자가 될 순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 직접 취재하지 않고 기성 언론을 요약해 기사를 작성했다. 6년 동안 학생 기자로 활동했지만 진정한 '기자의 삶'을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이다. 현직 기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외대학보에 문을 두드렸다.

외대학보 1040호와 1041호 모두 인물면을 맡으며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했다. 처음엔 인물면의 특성상 직접 글을 구성할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동문에게 연락하고 질문지를 구성하며 현직 기자의 활동을 경험했다. 타 언론사의 기사를 참고하지 않고 직접 취재하고 작성해 감회가 새로웠다. 이처럼 기자로서 활동하며 본의 아니게 시작한 활동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다.



김연수 기자

사랑하기, 소설 쓰기 [김연수 작가의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을 읽고]

사랑에 관한 얘기는 진부하지만 늘 귀 기울이게 된다. 누군간 살의 목적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누군간 사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삼원덕 중 사랑(Charity)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보호△책임△존경△이해란 네 가지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개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을 강조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단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김연수작가(이하 김 작가)의 단편집 <나는 유령작가입니다>에 실린 소설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책은 자살한 여자친구에 대한 소설을 쓰는 남자와 이 남자에 대한 소설을 쓰는 여자에 관한 얘기다. 남자는 자살한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어떠한 암시도 보내지 않았단 점에 좌절하는 한편,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도서관 기록을 뒤져 그녀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왕오천축국전'이란 것을 알아내고 책의 배경이 되는 '낭가파르바트산'에 오른다. 교수인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며 역시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려 한다.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은 여자가 남자에 대해 쓴 소설 그 자체다. 이 소설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란 전위적인 표현법만큼이나 깊이 있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소설 쓰기'다. 글로 누군가를 묘사하기 위해선 그가 돼야 한다. 타자의 시선으로 그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꼈을 행동의 이유와 기분에 입체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작품속에서 김 작가는 소설 쓰기를 사랑과 동일시하고 있다. 누군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처절한 시도가 결국은 사랑이란 것이다.

우린 쉽게 '나 자신은 실제로, 타인은 일종의 이미지로' 인식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이 누적돼 빚어진 사회는 공감에 인색하다. 자기 자신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 유평하는 존재로 여기는 반면 타자의 행동은 쉽게 범주화하고 평가한다. 이때 이런 행태는 반드시 갈등으로 번진다. 페미니즘은 과격하단 이미지가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고 좌파는 비열하단 이미지가 극단적인 우파 집회를 만들어냈듯이 말이다. 김 작가에 따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타인을 자신과 똑같이 결이 살아있는 존재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가득 차서 넘칠 것 같은 갈등과 분열 속에 막막함을 느낀다면,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우린 먼저 그에 대한 소설을 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 [영화 '올드보이'를 보고]

말에 관한 격언은 무수히 많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말과 관련된 격언이 의미하는 건 주로 말의 파급력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쉽게 잊고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말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고 서로 상처받는다. 나아가 광범위한 전파가 가능해진 온라인의 발달은 말의 파급력을 키웠지만, 그만큼 파괴력 역시 증가시켰다. 이는 지난해, 악성 댓글로 인해 죽음에 이른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올드보이의 오대수와 안우진 역시 어렸을 적 받은 말 한마디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다. 오대수에게 가벼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말이 안우진의 누나에게 죽음이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오대수 역시 안우진 남매의 애정행각을 발설한 자신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15년이란 시간을 뺏겼고 자신의 딸인 미도와 성적으로 사랑하는 불행에 빠졌다. 안우진의 철저한 설계에 놀아난 오대수는 차마 자신의 딸에게 이 진실을 알려줄 수 없어 스스로 혀를 자르고 유명한 최면술사에게 기억을 지워달라고 애원한다. 최면술을 받은 오대수는 눈이 오는 들판에 쓰러지고 그를 발견한 미도가 오대수를 안으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안우진의 복수가 잔인하면서도 아름답게 성공한 장면이다. 오대수가 타인의 삶을 무너뜨렸던 자신의 혀를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말을 할 수 없게 됐고, 말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화는 오대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은 우리의 입과 혀를 거쳐 무거운 돌덩이가 돼 상대방의 마음을 짓누른다. 역설적이게도 우린 이런 상황을 쉽게 잊고 떠올리지 못한다. 피해자는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할 흉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영화 속 안우진은 이에 대한 해답을 말해준다. "당신이 그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말이야 그냥 잊어버린 거야 남의 일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오대수는 웃다가 운다. 간절하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미도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비극을 평생 겪어야 했다. 왜 자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을까. 그가 지워달라 했던 과거는 안우진이 말했던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죄책감과 후회에 마음이 짓눌렸다. 친하단 이유로, 지나가는 풍문이란 핑계로 수없이 말이란 총알을 수많은 타인의 마음에 관통시켰다. 영화 속의 오대수와 안우진은 현실의 나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어느 타인이었다. 나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쉽게 뱉을 수 있는 말로 이곳저곳에 복수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1040호 학보를 읽고

어떤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학교의 역사를 지켜보길

'개강호'란 이름이 무색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학교 캠퍼스에서 외대학보를 만날 수 없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취재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사히 마감을 마치고 1040호를 발행한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1면에 글로벌캠퍼스의 GBT 학부에 이커머스 특성화 사업이 개설됐단 소식이 실렸다. 기사의 리드에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됐단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짚어주면 좋겠다. 단순 선발 방식 소개보다 선발된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2면에선 현재 공사 중인 송도캠퍼스의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준공식 현장을 생생히 묘사했지만 더 분석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국제교육센터의 시설 소개에 그치지 않고 설립 목적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담았다면 더욱 질 좋은 기사가 됐을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개최한 유엔해 사회부총리(이하 유 총리) 간담회를 다룬 기사의 보도사진은 유 총리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의 모습과 표정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나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유학생을 향한 차별적인 표현 수정 요청에 학교도 동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한다. 3면은 △교육부의 지적사항△학교 입장△총학생회를 비

롯한 학생들의 의견까지 이해당사자의 다원성을 갖춰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입학 발표를 정리해 전달한 것에 이어 비교 분석하는 후속 기사가 기대된다. 특집기획 기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정부△교육부△총학생회△관련 회의체△학교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취재하고 대처 현황을 정리해 알아보기 쉬웠다. 다만 유 총리에 대한 명칭 통일성이 없어 아쉬웠다.

9면에서 다룬 '문학상 구조적 문제'는 익히 들어왔다. 위계관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행처럼 여겨온 문학계의 현실이 쓰렸다. 관행을 깨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수상을 거부한 김금희 작가와 이에 동참한 일부 작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나이가 신인 작가를 위한 문학계 전체의 자정작용이 필요해 보인다. 12면의 우리학교 특성을 살려 언어를 공부하고 국제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잘 알지 못했던 제로헝거 프로젝트도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도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학보에서도 언급됐듯이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역사의 초고다. 지면에 실지 않더라도 기사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좇고 해당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회계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외대학보가 끝까지 소식을 전해줬으면 한다.

이미지 (사회 · 미디어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40호 학보를 읽고

외대학보 그리고 평범한 독자의 목소리

외대학보 1040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면의 '회계 감사'는 전문적인 단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인 기사 구성으로 극복했다. 사건 전개 방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첨부 자료를 통해 글의 신뢰성을 높였다. 8면에선 '기생충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장·단점 비교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각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 역시 적절했다. 12면의 '외대 동문' 인터뷰는 정보의 유익함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다. 평소 알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홍보 효과와 세계적인 마인드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는 새로운 진로의 소개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역시 존재한다.

1면에 선정된 주제의 임팩트가 다소 아쉽다. 1면에서 유발된 흥미가 독자를 신문 전체로 이끈다. 하지만 1면엔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할만한 주제 없었다. 또한 같은 면에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됐다'란 사실만을 명시했을 뿐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및 비전이 제시돼 있지 않다.

2면에선 DIPMX 그룹을 모르는 독자를 위해 해당 그룹의 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를 돕는 첨부 자료도 필요하다. 4면에선 '아이슬란드' 3곳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돌포스' 사진 자료만 제시된 점이 아쉽다. 세장의 사진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3곳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사진 혹은 아이슬란드의 대표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리적 사실이 단순 나열돼 있어 전반적으로 딱딱하단 느낌을 받았다.

6면과 7면은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양면에 걸쳐 설명된 내용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 빈약했다. 학교가 '각 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논의 중인 사안들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면 한다. 또한 타 대학 동향 파악과 기숙사 관련 논의 등 총학생회의 업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부재했다. 이외에도 개강 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개강 후의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강 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기재해 이후에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외대학보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위기 속에서 특정 기관은 본연의 자질을 평가받기 쉽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외대학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외대학보가 전해준 소식은 우리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앞으로의 외대학보 행보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건우 (통번역 · 스페인어 19)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 · 부장 고정칼럼

심표가 가진 의미

(이하 심표)는 글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앞단어를 보충할 때 쓰이거나 문장 사이를 끊어 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접속어의 기능을 해 어구와 어구 사이를 잇기도 한다. 특히 글을 말로 읽을 때, 심이 갖는 영향력은 크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심은 그 공백의 시간 동안 화자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게 하고 그전에 했던 말을 되새기는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우리는 일상에서 중요한 심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 · 중 · 고등학교는 방학을 연장했고 많은 회사는 휴가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 개강이 2주간 미뤄졌고 21일자로 4주간 온라인 원격강의 시행이 발표됐다. 모두 본의 아니게 휴식 같지 않은 휴식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외대학보 1041호엔 ‘우리학교 원격강의 시행’에 관한 기획뿐 아니라 ‘우리학교 새터’ 그리고 ‘우리학교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획도 보도됐다. 일부 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부족한 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의도치 않은 휴식을 맞이한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심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일지 모른다. 따라서 이번 호엔 꾸준히 제기됐던 우리학교 새터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꼬집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다뤘다. 설문조사를 집계한 결과 우리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대기시간△새터 비용△중앙관 연예인 공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내 쓰레기 처리에 대해 총학생회와 학교 관련 부처에 재학생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 관심을 약속받았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온라인 개강이 시작됐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 속 이러한 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휴식을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겠지만 낫 놓고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 학생은 원격강의를 통해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는 그동안 부족했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보완해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문장에서 심표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갖는 심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조미경 부장 99migyeong@hufs.ac.kr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김나현 :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그저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치부하는 언론과 사회를 비판한다.

김미정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

김연수 :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이 해결돼 모두에게 평화를 주길.

이상우 : 아무리 진품을 모방해봤자 모조품은 티가 난다!

이서미 : 모두 올바른 쓰레기 처리법을 숙지해 좀 더 깨끗한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준성 : 새터가 불발된 만큼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는 더 즐거운 캠퍼스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현지 :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와 더불어 같이 온 경기 침체도 무사히 해결되길.

조미경 : 본의 아닌 휴식의 시기, 휴식이 아닌 휴학이 답일지도.

조하영 : 코로나19와 원격강의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웃을 수 있길 바란다.

조현수 : 모든 디지털 성범죄자 꼭 쫓값 치르길.

최민선 : 이 모든 일이 지나가면 한 발짝 성장할 사회를 기대한다.

허지나 : 언론의 조명은 굴곡과 그늘을 드러낼 수 있다.



십자말풀이

				③		④				
③										
						④				
										①
②				②						
⑤										
⑤										
						①				

가로

1. 생명공학과 황윤정 박사과정생, 한국미생물 · ○○○○○ 동계심포지움에서 최우수상 수상해(1면 참조)
2. 율가 토크리츠크의 ○○○○○○(12면 참조)
3. 우리학교는 현재 서울캠퍼스 내 ‘○○○○○’를 운영하고있다.(5면 참조)
4. 우리학교의 모든 원격강의는 정해진 ○○○○○에 따라 진행되며 매 수업 출석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4면 참조)
5.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이 높아지며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9면 참조)

세로

1. 한편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원을 ○○○○○○에 회부했다.(8면 참조)
2. 우리학교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 학생들 ○○출간해(2면 참조)
3. 그 결과 91%에 이르는 170명이 ‘사이버 종교의 ○○○○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5면 참조)
4. 우리학교의 모든 ○○○○은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며 매 수업 출석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4면 참조)
5. 주경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와 ○○○○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의미합니다.(9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번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n번방 사건과 사이버 윤리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메일, 화상통화, SNS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온라인 활동을 통해 취미와 관심사가 맞는 사람과도 어울리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런 사이버 사회의 밝은 면 뒤에는 숨은 부작용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불거진 n번방 사건일 것이다. 얼마 전 SNS를 통해 ‘n번방’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다.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온 지 몇 개월이 된 이야기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화제에서 밀려났다고 한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에서 음란동영상 등을 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을 말하는 데, 대화방이 여러 개라서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대상 여성의 개인 SNS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하거나,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한 후 음란물을 촬영하여 대화방에 올렸다고 한다. 이 대화방에 입장하려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없으면 강제로 퇴장된다고 한다. 이런 성 착취의 대상이 된 여성은 밝혀진 것만 74명이며 이 중 10대 초반이 포함된 미성년자도 다수 있다고 한다. 더 이상의 세부 내용은 반인륜적이며 처참하기 그지없으므로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 n번방의 사용자들은 영상 속 여성이 성폭력을 겪는 것을 즐기며, 피해 여성을 어떤 폭력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얼굴을 맞대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촬영 기계를 거쳐 만나는 영상 속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거부감 없이 끔찍한 성 착취를 즐긴 것이 아닐까? 마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듯 말이다.

내가 놀란 것은 n번방 사건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다. 한 대화방의 동시접속자 수가 최대 1만 명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하며, 이런 음란물을 올리는 대화방 60여개의 참여자 수를 단순 취합하면 26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돈을 내지 않는 ‘맛보기방’ 같은 경우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무엇이 이들을 다소 엽기적이까까지 한 내용의 성 착취 동영상에 이끌리도록, 잔인한 폭력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즐기도록 만들었을까?

나는 n번방과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앞으로 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 사이버 사회는 앞으로도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가상공간의 확대로 인해 빛이 밝아질수록 그 이면의 어둠도 짙어질 것이다. 그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사이버상의 반인륜적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n번방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n번방 음란물 제작과 유통에 가담한 사람들만이 처벌을 받으며, 그마저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피해에 맞는 형을 주기가 어렵다고 한다.

영화나 가상공간의 게임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n번방을 가상공간의 게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그리고 아직 덜 성숙한 어른들은 가상공간 노출 정도에 따라 이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은 우리 이웃이며,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실제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 의식과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제약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윤리 의식에 맞는 사이버 윤리를 만들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가(儒家)에서는 신독(慎獨)을 강조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늘 삼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물시(非禮勿視)라고 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것이다. 가상공간이 비대면 공간이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옛 성현들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뜬금없는 이야기로 느낄 지도 모르겠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런 말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쓰자는 이야기다. 가상공간이라고 해서 더 가벼운 행동을 해도 되는 곳이 아니다. 가상공간의 사회 역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가상공간만의 사회가 아니다. 가상공간 사회는 이미 현실사회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인류가 축적한 지혜와 윤리를 버리지 말고 다시 살려서 본받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할 이유다..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나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폴란드 문학 번역의 선두자, 최성은 우리학교 교수를 만나다.

최성은 번역가(동유럽·폴란드어 90)동문은 16년 동안 올라 토카르추크(이하 토카르추크)의 '태고의 시간들', 비스와바 침보르스카(이하 침보르스카)의 '끝과 시작'과 같은 여러 폴란드 문학을 번역하며 폴란드 문학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폴란드 문학 번역의 가장 최성은 교수가 걸은 길을 따라가 보자.

Q1 대학 시절 최성은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각도 종종 했고 연애도 했습니다. 이후엔 조교로 선발돼 학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전공인 폴란드어를 좋아했지만 교양이나 부전공의 경우엔 과목별 호불호가 확실했습니다. 학점 높은 우등생은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독서를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하며 음악을 즐겨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해보면 좋아하는 분야는 열정이 가득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Q2 폴란드어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990년대엔 폴란드어 책이나 신문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따라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공개한 뉴스를 찾아보며 폴란드어를 공부했죠. 또한 폴란드어 사전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학교에 초빙된 원어민 교수와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저마다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청각형 학습자(auditory learner)*'입니다. 폴란드 영화를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한 후 배우들의 대사를 따라 하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수가 읽은 교재 본문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원어민의 △억양△멜로디△강세를 모방하며 큰 소리로 읽어보는 훈련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3 번역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와 번역가로서의 보람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폴란드 현대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폴란드 문학이 여태껏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아 안타까웠어요. 이에 원서를 못 읽는 저학년 학생이라도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폴란드 문학을 접

할 수 있도록 번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출판사에 번역 제안서를 보냈고 번역이나 출판 작업을 지원하는 공모전에 응모하며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문학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햇수로 16년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문인의 작품을 번역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원작의 뛰어난 문학성 덕분에 부족한 번역에도 불구하고 독자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 교수와 올라 토카르추크 작가

전공자가 많지 않은 폴란드 문학을 번역하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번역가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작품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2012년도에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문학을 널리 알린 공로로 교수님께 십자가 훈장을 수여 했는데요. 폴란드 문학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폴란드는 러시아나 독일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폴란드

문학은 이런 수난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꽃을 피웠습니다. 문인이 나서서 문학을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했던 것이죠. 여기에 폴란드 국민의 열정이 더해지며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문학적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지금까지 다섯 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문학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10일, 토카르추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수훈사를 낭독한 스웨덴 한림원 심사위원 대표는 "폴란드 문학은 유럽에서 독보적으로 빛나고 있다"며 "유럽의 교차로인 폴란드는 나아가 유럽의 심장이다"란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외래 문화가 폴란드 문화에 접목돼 만든 융합과 재창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5 201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토카르추크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토카르추크 작가의 소설 '태고의 시간들'과 '방랑자들'을 번역하셨는데, 토카르추크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카르추크 작가는 뛰어난 소설가라 언젠간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수상할 줄은 몰랐죠. 게다가 토카르추크 작가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2006년 토카르추크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태고의 시간들'과 '방랑자들'의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13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토카르추크 작가처럼 인간적·예술적으로 멋진 작가의 번역가로서 저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Q6 번역한 책 중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첫 번째로 추천하고자 하는 도서는 침보르스카 시인의 '끝과 시작'입니다. 침보르스카 시인의 시를 접한 후 그녀의 작품에 매료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 문학이 좋아져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 일념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침보르스카는 세상 만물에 대해 끝없는

애정과 호기심을 보여준 시인입니다. 그는 틀에 박힌 생각이나 선입견을 거부한 채 대상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언어△풍부한 상징△간결하고 절제된 표현△따뜻한 유머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도서는 토카르추크 작가의 '방랑자들'입니다. 100여 편의 다양한 글이 '여행'이란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씨실과 날실처럼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동시에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시간간격을 배경으로 여행길에 오른 다채로운 인간군상을 보여줍니다. '방랑자들'은 인생에서 전혀 무관해 보이는 타인의 생이 때론 가느다란 실처럼 연결돼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어딘가를 헤매는 낯선 타인의 얘기는 낯익은 얘기처럼 불현듯 우리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Q7 번역가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폴란드 문학의 경우 전문 번역가는 저를 포함해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굉장히 외롭고 많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문학작품을 언어체계가 전혀 다른 외국어로 번역한단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번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제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영국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네 언어의 한계는 네 세계의 한계다"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언어를 알면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다양한 언어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세계는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번역가는 세계의 지평을 넓혀 또 하나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청각형 학습자: 귀로 듣고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유형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www.ekmtc.com
KMTC LINE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고려해운이 새로운 100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